



김중위 | 초대 환경부장관·수필가

기인(奇人)들의 기행(奇行)들

벌써 반세기도 넘었을 시절에 읽은 수주(樹州) 변영로(卞榮魯) 선생의 「명정(酩酊) 40년」에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얘기는 그가 명륜동 뒷산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다가 비를 만나자 근처 소나무에 매어둔 소를 타고 알몸으로 산에서 내려온 얘기가.

그의 형 변영태(卞榮泰) 선생 역시 외무부 장관이 되어 외국 출장을 갈 적에도 언제나 젊었을 때처럼 가방 속에 아령을 가지고 다니면서 때때로 옷통을 벗어부치고 남들 앞에서 이를 자랑하는 것을 보고 형제가 모두 약간씩의 기인(奇人)끼가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얘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나라에서 기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기행(奇行)의 기록만으로도 본다면 방랑시인인 김삿갓과 어렸을 때의 한음(漢陰)과 오성(鰲城)을 들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조선조의 화가 최북(崔北)만한 기인은 없을 성 싶다.

서양의 화가 반 고흐는 정신착란증으로 자신의 귀를 잘라버렸지만 최북은 멀쩡한 정신으로 자신의 눈을 빼 버린 사람이니 말이다. 단원과 동시대의 사람인 것 같은 그에 관한 얘기(金陵集이 원전이라고 한다)는 「한국의 기인열전」이나 근원(近園)수필집에서도 보았던 얘기가지만 요즘의 세상이 제정신가지고는 살아가기 어려운 것 같아 차라리 나도 그런 사람처럼 기인 기행으로 살고 싶은 생각도 은연중 들어서 다시 한번 이곳에서 되뇌어 보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가 지어준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통인데 최북(崔北)이라는 사람은 어쩐 일인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버리고 자신이 스스로 북(北)이라 짓고 자(字)를 칠칠(七七)이라 지었다. 北이라는 자를 쪼개면 七七이 되니 말이다. 어찌면 사람이 칠칠맞지 않다는 뜻의 호를 짓고 싶어서 북이라 이름 짓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동네 〈북〉처럼 맨날 남에게서 매나 맞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지은 것 같기도 하다. 게다가 죽은 나이 또한 칠칠이 49가 되는 해에 죽었으니 이것까지도 짜 맞추어 자신의 이름을 지은 것 같아 도무지 알 수 없는 기인(奇人) 중의 기인이라 여겨진다.

자신의 그림을 잘 그렸다고 칭찬해도 샷대질이고 못 그렸다고 하면 귀싸대기 맞기 십상인 것이 최북의 그림이다. 그림도 모르는 주제에 잘 그렸다고 하면서 돈을 많이 주니 그건 천하 바보짓이고 못 그렸다고 하는 놈은 그림도 모르면서 되잖은 소리를 하는 놈이니 한대 맞아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얘기가.

세도께나 있는 사람이 자기를 업신여기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조른다. 아니꼬운 생각에 그림을 그려주지 않자 이제는 마구 협박조다. 최북은 그만 화가 나서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면서 말하기를 “내 몸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여”다. 그때부터 유리알을 끼고 다니는 애꾸눈의 호생관(毫生館)이 되었는데 호생관이란 붓 하나로 먹고 산다는 뜻이다.

산수화를 잘 그린다 하여 최산수라는 별호도 얻었

던 그에게 누가 산수화를 그려달라고 하자 산만 그려주고 물을 그려주지 않았다. 당연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을 터였다. 그러나 그에게서는 모진 욕박에는 나올 것이 없었다. 눈 하나밖에 없는 나도 보이는데 두 눈 가진 네 눈에는 물이 안보이느냐고 호통이다. 어리병병해 하는 사람에게 하는 소리가 종이 바깥은 다 물인데 웬 잔소리가 많으냐는 것이다.

내가 바둑이 아닌 바에야 흔히들 바둑 두다가 한 수 물러달라는 것이 친구기간에 흔히 있는 일이지만 최북에게서만은 절대 허용이 안된다. 어차피 장난인데 무르키는 뭘 무르느냐는 것이다. 어차피 장난이니까 물러줄 법도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다르다. 한 수 한 수 물러주다 보면 바둑 한판이 언제 끝날 수 있겠느냐는 것이 그가 한 수도 물러주지 않는 이유다.

경치 조은 곳이야말로 자기같이 멋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서 철석 뛰어내리는 기벽에다가 술은 말술이다. 팔다 남은 술 팔 대상으로는 최북만한 사람이 없어 그의 집 앞에는 언제나 술장사로 저자를 이루었다 하니 그 기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셈이다. 이런 정도까지의 기인이나 기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국회 안에서 보면 국회의원만한 기인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국회의원이 되고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의 초상집만 찾아다니면서 죽은 시체 염해 주고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고 동네사람 주례란 주례는 다 서주고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는데 직업도 없이 허구한 날 그러고 다니는 것을 보면 제정신 가진 사람으로서는 할 짓이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국회의원하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치고 제대로 직업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던 시절의 얘기가기도 하지만.

선거에 나올 적마다 떨어지던 어떤 국회의원이 재야시절 하루는 외도를 하고 집에 돌아와 옷을 벗는데 내복 허리춤에 웬 여자의 스타킹이 끼어 매달려있는 것이 부인의 눈에 띄었다.

“당신 허리춤에 웬 여자의 스타킹이야? 당신 지

금 탄 짓하고 왔지?” 어찌다가 이런 실수를 했나 하고 깜짝 놀랐으나 직업도 없이 잘도 능청을 떨면서 평생을 살아온 이력으로 금방 둘러대는 기지를 발휘한다.

“응! 이것 말이야, 지난번에 당신하고 가봤던 아무개 사주쟁이 집 있지? 오늘 그 집에 갔더니 말이야, 이번 선거에서는 꼭 당선될 거라고 하면서 대신 남의 여자 팬티나 월경대나 스타킹이나 뭐 이런 걸 걸치고 다니면 좋다고 해서 차고 나온 건데 당신이 싫다고 하면 나 안 차고 다닐께!” 부인은 그걸 못 차고 다니게 했다가 선거에서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아니아! 꼭 차고 다녀요. 이번 선거에는 꼭 이겨야지요”

이런 국회의원도 있었다.

중앙정보부가 무소불위로 정치인을 미행 도청을 하면서 기승을 부릴 때 어떤 의원이 남의 집 고운 딸과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다. 총선거 때 합동연설장에서 자기 차례가 되어 막 연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인이 연단에 있는 후보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뱀다 고함을 지른다.

“야! 이놈아! 내 딸 어떻게 할 거야, 이놈아!”

무슨 연유로 이 부인이 그러는가를 아는 후보는 재빨리 청중을 향해 연설을 한다.

“여러분! 지금도 보셨지요? 중앙정보부는 이렇게 악랄하게도 선거현장에까지 프락치를 내세워 선거 방해공작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달빛에 구워 빛어내면 신화가 되고 햇빛에 내놓으면 산화(酸化)되어 우스갯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 약력

- 고려대학교 경경대학 및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정치학 석사)
- 명예행정학박사(특수교육진흥공로)
- 초대 환경부장관 및 제12, 13, 14, 15대 국회의원
- 수필문학회 이사
- 한국문인협회 및 국제펜클럽 회원